

오피니언

다산포럼

금 강



몇 해 전 송례문이 방화로 쓰러진 후에 국가기정문화재의 건축물이 있는 곳은 방법 방화 시설을 더 단단하게 보완했다. 당시 곳곳에 방화등을 켜 놓았던 절에도 밤이 환하다. 일본의 호시노무리의 별빛이 가장 아름답다고 노래하던 어떤 지인이 미황사의 겨울 별빛을 보고는 그보다 훨씬 별들이 많이 보인다면 좋아하던 이야기가 귀에 맵도는데 오늘은 거슬린다.

어느새 깜깜한 밤 숲길로 접어들었다. 불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옛 스님들의 사리탑을 모셔둔 부도전까지 왔다. 열반의 적막함 위에 쏟아지는 별빛들이란.. 사람들은 불빛을 너무 많이 켜놓고 산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들도 많아서 오히려 내가 지금 어디에서 있는지, 진정한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모르고 무의미한 별들을 가득 켜놓는다.

“과거, 불규칙이고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살았다. 어느 날 문득 이렇게 한심하게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20대라는 인생의 새로운 관문에 들어서는 이 중요한 시점에 지금

이라도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겠다고 생각해 그 방법으로 미황사에서 운영하는 7박 8일 수행 프로그램 ‘참사람의 향기’를 택했다.”

“참선을 하며 ‘이게 뭔가.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나 스스로에게 질문

고 살아왔던 지나간 과거와 잡착이 함께 흘러내렸다.”

“그 시간 이후로 나는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 것인지 조급은 알게 되었고, 방법을 알게 되자 더 또렷하게 화두에 집중할 수 있었고 더욱더 깊이 내면의 나를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이 화두수행을 통해 눈물도 흘리고 가슴 아파하면서 진정한 나를 싸고 있던 번뇌의 깨데기를 한 껌풀 벗겨낼 수 있었다. 이런 참선의 시간을 거치고 나니 나 스스로 마음이 한결 갑하고 평온해지며 중심이 서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참사람의 향기’ 정민경 참가 수행 후기 중)

마음은 본래 깨끗하고, 마음은 이미 고요하다. 요즘 들어 마음이 고요하지 않다면 그것은 마음이 감정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본래 마음의 빛을 만나고자 한다면 잠시 멈춰야 한다. 절 마당의 방법들을 끼야 별빛이 나타나듯 여기저기 커놓은 나의 불빛들을 잠시라도 꺼야한다. 잠자기 전 이불 속에서 10분이라도 육심의 불, 비교하는 마음의 불을 끄고 호흡을 가다듬고 숨 쉬고 있는 생생한 자신을 느끼보기를 바란다.

“...육심부리지 않았다. 너무나 완벽한 자연 앞에서 나를 그대로 내어놓았다. 새벽부터 지저귀는 산새들의 장단과 새벽 안개가 걷히고 나면 모습을 드러내는 아주 소담하면서 아름다운 밤그레한 동백꽃 까지.. 금방 깨달음을 얻지 못해도, 그 깨달음이 쉬이 내게 오지 않더라도 난 그저 행복했다. 동백꽃 주위를 맴도는 동박새가 노래해주는 그런 시간들, 난 그대로의 나였기에, 또 지금이 자리의 나이기에 나는 행복하다.”(‘참사람의 향기’ 김진주 참가 수행 후기 중)

겨울철 내내 나와 만나는 시간을 만들었다.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을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주었다. 그것이 내가 산중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별빛을 보기 위해서는 방법들마다 꺼주는 일이다. 〈미황사 주지 스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별빛 밝히려면 등불을 꺼야 한다

을 던지는데 순간 울컥하는 기운이 솟아올랐다. 과거에 깨매여 살아온 이런 아집과 번뇌가 가득한 것이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내 속에는 분명 부처가 있고 진리가 있건만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걸들며 살아온 나를 되돌아보게 된 것이다.”

“그렇게 살아온 나 스스로가 한심하고 분해서, 진리를 속에 품고 있으면서도 눈이 어두워 진실 되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 스스로가 억울해서 눈물이 나왔다. 한번 나온 눈물을 하염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물과 함께 내가 기습에 담

우리들의 본래 마음은 별빛보다 밝고, 불 햇살보다도 많은 생명을 살리는 포근함과 넉넉함이 있다. 분별하는 마음을 내어 수많은 것을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우리들 스스로 만들어 놓았다. 언제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면서 들으면서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깜깜한 밤잠을 자면서도 생각의 불들을 밝히고 있어서 참다운 마음의 별빛은 오히려 늘 흐린 날이다.

어느 선사의 글에서는 마음으로 말하면, 마음에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다.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다.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상호작용하는 방법, 그리고 교원 권위를 존중하는 자세를 길러 주는 것이 교육에 기초가 되어야 한다.

가장 품격 있는 교육은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이다. 그리고 그것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꿈꾸어 준비해 나갈 때 가능한 것이다. 준비는 변화에 대한 바른 인식을 전제로 한다. 교육도 많은 분야에서 개척되어야 한다. 다만, 점진적 변화와 단계적 성장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에서는 감미로운 진보의 이상도, 고달픈 보수의 현실도 다 함께해야 한다. 운고지신(溫故知新-옛 것을 익히고 새로운 지식을 안다)하고 여시구진(與時俱進-시대 흐름에 맞추어 새롭게 변화해 나간다)도 해야 한다.

오동나무는 천년을 빙어도 변한없이 거문고의 소리를 간직하고, 매화는 평생을 추위 속에 살아도 향기를 팔아 안락함을 구하지 않는다(桐千年老寒梅 梅一世寒不賣香)는 말이 있다. 교직자의 길이 비록 힘들 것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품격을 높여가는 출람지재(出藍之才)를 기르고,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으로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백년 대계의 가치는 무궁토록 지속될 것이다.

이제 새 학기를 앞두고 있다. 봄을 예고하는 학신이 언제나 반갑고 가슴 벅찬 것처럼, 올해 한 해의 다짐과 포부가 매화의 향기처럼 환하게 펼쳐지기를 기대해 본다.

〈전 전라남도 교육감〉

기고



김 장 환

설한(雪寒) 속 매화에서 교육을 본다

매화를 일개 물상으로 여기지 않고 정신문화의 차원으로까지 이끌어 올렸다.

윌리엄 세이스퍼어는 “꽃에 향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품격이 있다”고 하였다. 격이란 원래 각각의 나무관자기 ‘뒤틀림’ 없이 맞추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품격은 곧바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씨와 행동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도 사람다운 품성을 갖추도록 돋고 이끄는 일이다. 그리고 그 근본은 성김과 사랑, 감사와 배려의 마음을 실천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부모와 스승을 공경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가르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교육의 학두가 되어야 한다.

요즈음 시대에서는 무엇보다도, 나와는 다른 문화와 사람을 품을 줄 아는 포용력과 유연성이 필요하다. 즉 세계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양식과 올바른 가치관이 사람의 품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그하기에 품격은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 사랑을 통해 조금씩 쌓아 올리는 것이다.

교육은 정치논리나 물리적 수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대목이 있다. 그것은 교육 논리로 풀어야 한다.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인간적 사랑과 공경심을

기를 간직하여 천하의 봄을 먼저 피우네(儲萬斛香先天下春)”라고 노래하였다. 매화의 예지와 선도자적 모습을 예찬한 대목이다. 한겨울 풍물을 끗하게 이겨내며 생명을 틔우는 매화야말로 내일의 희망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지사의 풍모에 비길 만하다.

헨리 반 다이크는 ‘무명교사 예찬’에서 “그가 켜는 수많은 죽불, 그 빛은 후일에 되돌아 그를 기쁘게 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그가 받는 보상이다”라고 하였다.

변화 불의의 이 시대에 산간오지를 마다하지 않고 초일심으로 사도의 길을 걷고 있는 교사들이 우리 주위에는 아주 많다. 그 분들이야말로 벽지에서 세계를 지향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전령사라 아니 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학교폭력도 결국은 교육대도를 걷고 있는 교사들의 열과 성을 다하는 학생 지도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임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교육 품격을 조성이 절대적인 요인이다.

교육은 정치논리나 물리적 수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대목이 있다. 그것은 교육 논리로 풀어야 한다.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인간적 사랑과 공경심을

만 몇 순간 더 넣어서 멀치 볶을과는 다른 차원의 밀반찬을 만들고, 쌀이 없어서 미역죽이 태어났으며, 풍나물밥 하는식으로 밥을 만들어 먹으며 행복해한다.

이런 것들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창조가 아니라 응용일 뿐이다. 내가 네팔에서 겪는 독특하고 다양한 경험들,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깨닫는 것, 서로의 디플을 알아가는 것들은 나의 새로운 자원, 창의적 응용거리가 되어 나의 여생을 보다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객관적인 환경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사람들의 염려와 달리 나는 네팔에서 씩씩하게 잘 살고 있다. 때때로 가족과 친구들이 그립고 이층 아파트의 베란다 앞에 해마다 피어나는 목련꽃이 눈에 선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전남대학교 명예교수·파탄의대 객원교수〉

내가 만든 독창적 특식들

매콤, 달콤, 쌉쌀한 아주 독특하고 맛있는 밀반찬이 되었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멀치 뚝이 네팔로 가져갈 특식으로 탈바꿈하여서 나를 기쁘고 흐뭇하게 만들었다. 동생에게 맛을 보러나 “멀치 뚝이 네팔까지 가고 출세했다”면서 혼오식품 대하듯 도리질을 한다.

인천공항에서 대학 남자동기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안쓰럽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해서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내 자신이 갑자기 안쓰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다. 받는 이메일 중에는 식사 잘챙겨 먹고 건강하게 있으라는 당부가 많다.

직장인 대한항공으로 7시간 반의 비행이 끝나고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 시계 바늘을 3시간 15분 뒤로 돌렸다. 네팔은 아직 겨울인 줄 알았는데 오후의 햇볕이 너무 따가워서 초여름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해가 지자 겨울 날씨처럼 추워졌다.

짐 정리가 끝난 시각은 저녁 8시가 훨씬 넘어서 배가 고팠다. 밥솥은 가져왔으나 밖에 나가 쌀을 살 시간이 없었고 밥솥에 나가자니 개들이 무서웠다. 깊고 자기는 깊어서 가져온 미역에 미른 새우와 흥합을 넣고 미역국을 끓였다. 곡기가 없는 것이 아쉬운데 흑미차와 천마차가 눈에 띠어 넉넉히 풀었더니 새로운 요리, 미역죽이 되었다. 한국에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1-20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 팩스 062-4918 / e-mail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 설

위기의 녹차산업 이대로 방치할 건가

최근 보성 등 전남 녹차재배 농가들이 깊은 시름에 젖어 있다. 녹차는 한때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향자 품목으로 각광을 받아왔으나 3~4년 전부터 커피 열풍에 밀려 폐원(廢園)하는 농가가 속출하는 등 녹차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전남지역 녹차 재배면적은 지난 2008년 2683㏊ 농가 2034㏊를 점유로 줄어들기 시작해 2009년 2594㏊ 농가 1894㏊, 2010년 2367㏊ 농가 1599㏊로 급감했다. 커피 호황으로 녹차 소비가 크게 줄면서 농가들이 서둘러 녹차농사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자는 친환경 국제인증을 늘리고 고가품 이외 종류가 개발, 소비자 기호 충족 등 제품의 다양화·고급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도 품종개량, 녹차가공산업 육성, 관광사업 연계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소비자 역시 농가 시장을 떠나주기 위해 우리 차 애용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준비 안 된 ‘주5일 수업’ 부작용 대책 있나

새 학기부터 전국 1만1천493개 초·중·고 가운데 99.6%인 1만1451개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된다. 광주에서도 3개 자율형 사립고를 제외한 299개 초·중·고교가, 전남에서도 9개 학교를 제외한 822개 초·중·고교가 주5일 수업을 하게 된다. 토요일에 학교 안 가는 ‘놀토’가 격주에서 매주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전체 학교가 주5일 수업을 실시하는 셈이다.

주5일제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낮추고, 교사들이 자기계발 시간을 늘릴 수 있으며, 학부모도 가정교육과 자녀와의 체험학습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의 입장은 이와 자못 다르다. 토요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학원이나 과외에는 미망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에서는 감미로운 진보의 이상도, 고달픈 보수의 현실도 다 함께해야 한다. 온고지신(溫故知新-옛 것을 익히고 새로운 지식을 안다)하고 여시구진(與時俱進-시대 흐름에 맞추어 새롭게 변화해 나간다)도 해야 한다.

주5일제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낮추고, 교사들이 자기계발 시간을 늘릴 수 있으며, 학부모도 가정교육과 자녀와의 체험학습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무엇보다 공교육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토요일봄 교실, 운동 강습 등 토요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하는 게 급선무다. 또 아이들이 학원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정규 교육과정에서 심화 또는 보충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놀토’에서 마지막 사교육 격차가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큰 일이다.

無等鼓

중국 국가 부주석인 시진핑(習近平)은 오는 10월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총서기로 선출될 것이다. 오바마와의 만남은 시진핑의 위상을 안팎으로 드높임과 동시에 ‘G2’의 새로운 경쟁을 예고했다.

시진핑은 미국 방문을 통해 국제외교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함으로써 전 세계에 곧 그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알렸다. 아일랜드에서는 유럽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중국이 지원하겠다는 뜻을 다시 강조해 중국이 글로벌 체제를 리드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시진핑

시진핑의 등극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도 새 대통령으로 뽑히게 된다. 특히 중국은 남북관계와 경제문제 등으로 매우 중요한 존재다. 또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은 중국과는 협력과 경쟁이 교차하는 관계다.

과연 한국은 시진핑처럼 누구와 만나도 당당한 대통령을 선출해 제대로 국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해답은 오로지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박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光州日報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